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과 실천방안에 관한 탐색연구

The Exploration of Model and Application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n Korea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이승미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Assistant Prof. : Lee, Seung-Mie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에 관한 모색 |
| II.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 | IV.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모색 |
| | V. 요약 및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del and application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n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life welfare service, the object, the extent and approach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s examined. The model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s constructed on the base of definition for family life welfare—subsistence of family life, personal formation and development, the creation of community culture—, family life cycle and demand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Lastly, the contents and politic supports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are examined.

I.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60년대 이후 집약적인 고도경제 성장의 결과로 상당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분배정의의 요구증가로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대상과 초점은

일차적인 복지체제인 가정과 가족에게 맞추어질 수 있는데(임정빈, 1997), 이는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기본적인 터전이 가정이며, 여느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가정학은 가정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국가정학회 가 규정한 바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1993년

가정학의 새로운 개념들을 개발하고자 한 스코츠데일 회의에 따르면, 가정학의 목적은 교육, 연구, 협동 프로그램과 공공정보를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며, 그 사명은 지속적이고 새롭게 발생하는 관심사에 대해 행동하도록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으로 하여금 주요쟁점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며, 상호부조적 목적 하에서 조직 속에서의 리더십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최적의 복지를 성취하는 것이다(이기영, 1998).

그러나 가정학이 이와 같은 학문적 목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성과를 현실의 장과 연계하는 노력들은 최근에 와서야 일부 대학에서 평생교육의 형태로, 또는 연구소 중심의 강좌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흐름 하에 현재 가정(관리)학에서는 가정학의 학문적 성과를 현실의 장에 풀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정복지'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모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가정복지의 개념 등장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방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점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는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대상별 서비스를 가정 및 가족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전환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김명숙, 1995).

따라서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 및 가족원의 복지증진, 가정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보다 실천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가정복지의 개념화이며, 실천의 구체적 방식은 가정복지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학의 종합적 관점에서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가정복지의 개념들과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중심으로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서비스의 현장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가정복지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가능한데,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송혜림, 1999)에서 논의된 가정복지의 개념¹⁾은 다음과 같다. 가정복지란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공동체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정복지서비스란 '가족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상의 정의를 토대로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접근방식,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복지의 개념은 여러 선행연구(유영주, 1995; 임정빈 외 6인, 1997; 이성희·이승미, 1999; 송혜림, 1999; 노영주 외 3인, 1999)에서 연구자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며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혜림(1999)의 정의를 토대로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과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1.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 측면²⁾에서 살펴보면, 가정복지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지만, 가정복지는 공공가정, 공동체가정, 소집단 등에 이르는, 즉 근대적 가족이 수행했던 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해주는 생활단위를 포함하는 개방성을 갖는다.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이 과거와 달리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전통적인 가족 외의 다양한 생활단위가 출현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는 '가족보호모델(family care model)'에서 기존의 혈연중심 가족에서 나아가 '지역사회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지역사회가족이란 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을 지역사회내의 가족이 흡수하는 형태로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가족이나 독거노인, 무의탁 정신장애인 등을 지역사회내의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위탁보호(foster care)하고, 정부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김혜란·장경섭, 1995). 따라서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뿐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므로,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은 확대된 개념의 가족 또는 가정성을 지닌 집단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식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로 이루어짐에 따라(이성희·이승미, 1999; 최연실, 1999) 전체 가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는 없었으며, 가족복지서비스는 문제중심적, 사후치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명숙, 1995).

따라서 보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으로의 변화 뿐 아니라 기존의 대상별 접근시에도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의 변화가 가정복지서비스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고려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정복지서비스가 상호간에 배타적인 성격이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같은 대상을 접근할 때도 가정복지서비스는 '한 단위로서의 가족과 그 가족의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가정복지서비스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서비스가 단지 정책에 의한 물질제공이나 기초적인 상담 등에 머물러 있었다면, 인적, 물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특히 생활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3. 가정복지서비스의 범주

가정복지서비스의 범주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가족복지에서 규정하는 가족복지서비스의 성격을 보면, 가족복지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활동으로서, 다분히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가족복지기관의 목표는 가족내 개인 및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다(조홍식 외, 1997).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의미하는 가족복지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에 한정될 뿐 아니라 가족생활 중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가정복지의 목표는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하여 생활의 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그리고 공동문화의 창조이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2)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수요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즉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개별가정은 단지 서비스를 받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쌍방간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복지기능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요구를 포괄하는 것이다(송혜립, 1999). 따라서 가정복지서비스는 복지혜택의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전달체계의 성격에 따라-공적체계, 공사의 혼합모델, 사적체계-(공인숙, 1999) 그 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선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은 전체 경제체제와 모든 사회성원에게 미치는 '공공재(public goods)'나 '집단재(collective goods)'로서의 본질을 지닌다(김명숙, 1995).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근거로는 가정을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로 파악할 때, 이와 같은 재생산이 가족을 단위로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상품생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개별가족의 물질적, 심리적 안정은 경제체제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재여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며 당위적인 성격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한정할 경우 복지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의해³⁾ 가정생활의 질적 측면까지를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다양한 민간기관-예를 들면 종교기관, 시민단체, 기업체부설 복지재단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혼합모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웨딩산업, 산후조리원, 장례산업 등의 예와 같이 상업화를 목적으로 산업부문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지어 볼 때, 개별가정의 다양한 욕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품재를 가정복지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는 이러한 상품재가 이윤추구의 상업적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를 통

해 가정의 기능을 보완, 유지하게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전공자들이 상품재의 개발과 상품화에 참여해서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정복지서비스가 지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적극적 방향으로 제안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재(commercial goods)'까지도 가정복지서비스에 포괄될 때,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III.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에 관한 모색

현재 가정복지 관련서비스는 다양한 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⁴⁾, 많은 부분이 가정복지의 전체적 조망 하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산발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가정복지서비스가 가정복지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 수요자의 요구도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지향점을 분석함으로써 가정복지서비스 모형에 포괄되어야 할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가정복지의 개념규정을 토대로 가정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가정복지서비스에 관한 요구도 분석

지금까지 가정관리학분야에서 진행되어온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분석은 세부전공별로 정보제공이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 진행된 경우와 가정관리학분야를 총괄하여 분석한 경우로 구분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분석은 가정복지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제시의 토대가 되

- 3) 가정복지서비스는 일차적으로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정책은 자원이 결핍된 가족(요보호 개인이나 가족)을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보편적인 가족의 일상생활 측면의 지원은 아직까지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가정생활 관련 복지프로그램의 현황은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이승미, 1999)에서 ①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②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분석 ③가정관리학 분야에서의 복지참여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므로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부전공영역별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분석⁵⁾
가정복지서비스 요구 및 교육목표에 관한 세부전공별 연구를 가족관계분야, 아동(부모교육)분야, 소비자·가정경제·자원관리분야, 주거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관계분야

가족관계분야에서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요구도 분석연구가 상당정도 이루어진 상태인데, 전반적인 부부관계 향상에서부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요대상별 요구도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요구도 분석과 교육목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별 발달과제 중 주요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 : 예를 들면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중·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이해나 중년기 부부관계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과 자존감 형성, 그리고 노인부양을 위한 경우 노화와 노인질환, 노인의 성격특성 등.

② 대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관계의 증진이나 발달과제 수행을 위한 내용 : 예를 들면 가족대화과 갈등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법, 동반자적 의식과 친밀감 증진, 자녀출산 및 양육의 지식과 기술형성, 건강관리와 여가, 가사분담논의, 개인과 가족자원의 활용과 개발 등.

③ 실제적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내용 : 중년기가족의 노인부양의 경우 노인복지프로그램, 노령연금과 의료제도 및 관계법 등의 실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앞서 내용의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개략적으로 총괄하는 등 연구자마다, 연구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

렇지만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에서 노년기에 대한 이해, 부양자 자신에 대한 이해, 노부모와 부양자녀간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 경제, 여가 등과 관련된 영역 뿐 아니라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지적(옥선화·이형실·이춘희, 1994; 홍숙자, 1995; 홍숙자·이형실·전길양, 1995)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대상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편모가족에 대한 지원요구는 경제적 요구(예를 들면 기술직업교육)가 높다는 점(김경신, 1997)에서 대상가족의 특성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2) 아동(부모교육)분야

아동과 관련하여 부모를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요구도 조사결과(윤명선, 199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의 건강 및 보전에 관한 영역과 자녀의 인성 및 도덕성 지도에 관한 내용,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이해 및 자녀교육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요구도는 소득, 학력, 지역, 부모교육 참여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원아의 어머니, 유치원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요구도 분석결과(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에 의하면, 요구내용의 영역을 아동의 양육과 건강영역, 아동발달 영역, 가정에서의 아동의 교사역할영역, 아동 행동의 수정에 관한 영역, 아동을 위한 환경구성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1998에서 재인용).

(3) 소비자·가정경제·자원관리분야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분석(성영애·이기춘, 1988)을 살펴보면 비교적 이론적인 주제영역보다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주제영역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소득, 교육수준,

5) 세부전공영역별 요구도 및 교육목표 분석은 90년대 이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내용 중 가정관리학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라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지원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소비자요구조사(송인숙, 1998)에서는 정보요구와 교육요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에 대한 요구로는 상품의 선택기준과 소비자 불만대처방법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피해보상 규정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와 같이 실생활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홍향숙·이기춘, 1997)한 결과, 9개 주제영역의 순위는 저축, 보험, 주택 및 그 외 부동산, 세금, 지출계획, 부채관리 및 신용, 금전자원의 획득, 지역사회자원, 투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제영역별 요구순위를 살펴보면, '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각종 위험과 대비책에 관한 교육'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험에 들 때 소비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교육'으로 나타나 앞서와 같이 실생활 적용여부가 요구의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와 관련된 사회교육의 방향과 내용, 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교육요구를 분석한 결과(정영금, 1995), 가족자원관리교육은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활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며, 교육내용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포괄하여 시간, 노동, 의사결정, 스트레스, 금전, 환경자원을 다루되 실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별 과제로는 주부의 경우 자기개발에, 기타 가족의 경우는 가족공동체의식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 지적하지 못한 가치관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4) 주거 분야

전반적인 주택상담에 대한 요구도 분석연구(홍형옥 외 6인, 1998)에서는 주거생활양식·주거의 선택, 주거의 계획, 주택관리, 주택점검과 유지보수, 주택의 개조, 가구와 수납, 주거설비와 가정기기, 구조·재료, 환경, 주택경제, 주택관련법규, 정보·교육기관·자료정보, 전시장 및 판매처 안내, 관련도서 목

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 주택점검과 유지보수, 주거의 계획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구입정보, 하자보수, 수납공간, 주택세금·분양·자금정보, 전기·가스·조명·환기 등의 상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상담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택개조'가 가장 높으며, '전시장 및 판매처 안내'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정보에 관한 요구도 분석(주거학연구회, 1999) 결과, 주거환경, 주택점검과 유지보수, 주거의 계획, 가구와 수납, 주택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관리학분야 전반의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분석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임정민 외 6인, 1997)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를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가정복지프로그램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이혼, 재혼, 문체가정
- ②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교육, 학습방법 개선, 방과후 교육
- ③ 가정생활개선 프로그램 : 식생활·의생활 관리, 예절, 여가·시간관리, 기기사용, 생활컴퓨터
- ④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프로그램 : 저축, 투자, 세금
- ⑤ 소비생활개선 프로그램 : 소비자교육, 계획구매, 건전한 소비, 소비자보호
- ⑥ 노후생활개선 프로그램 : 건강, 경제, 주택, 여가, 죽음준비
- ⑦ 건강관리 프로그램 : 식이요법, 노인치매, 성인병, 노인병
- ⑧ 주생활관리 프로그램 : 주택구매, 이사 후 적응, 주택개조
- ⑨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프로그램 : 음식, 의복, 가구의 재활용·교환·처분
- ⑩ 가정생활 관련 법률상식 : 가족법, 임대차보호

법, 소비자보호법

⑪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 부업 및 취업관련 정보

⑫ 자원봉사 프로그램 : 아동·장애자·노인생활 지원, 의료보조서비스

⑬ 생활문화육성 프로그램 : 좋은 세상 만들기, 지역공동체, 생협 등

이상과 같이 구분된 영역을 교육과 상담으로 구분하여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상담 모두 아동 및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과 노후생활준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프로그램, 주생활관리 프로그램, 가정소득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상담보다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의 세가지 영역 역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과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의 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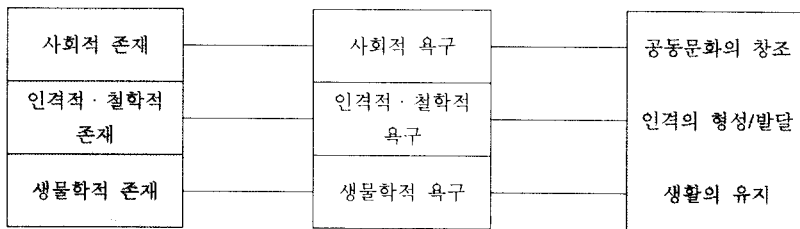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관련분야의 개설 희망 강좌내용을 분석한 결과(이성희·이승미, 1999)에 의하면, 부모자녀와의 대화, 가족원의 건강과 영양, 부부간의 대화, 자녀성교육, 자녀양육기술, 시간관리와 여가영역,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피해구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족관계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2.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

앞서 분석한 가정복지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조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복지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송혜림, 1999)에서 제안한 가정복지의 개념들을 토대로 하고자 한다.

인간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재차원으로부터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며,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욕구충족 역시 이와 같은 다양한 인간의 존재차원을 토대로 욕구가 발생한다. 즉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욕구에 부합되는 생활의 유지, 인격적·철학적 존재로서의 욕구에 부합되는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에 부합하는 공동문화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 가정복지의 목표이다. 따라서 가정복지의 기본적 목표는 생활의 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공동문화의 창조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구체화할 것인가가 가정복지 모형의 방향성을 제안해 준다.

한편 가정생활이란 가족의 생성, 성장과 확대, 축소라는 역동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은 수행해야 할 발달과제를 경험하게 된다. 즉 개인과 가족은 가정생활을 통해 그들의 발달과제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족생활주기별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 및 이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는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정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인간의 존재차원

존재차원에 따른
욕구의 분화

욕구충족을 위한
가정 복지의 과제
및 목표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가정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분석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가정복지의 목표를 기반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제를 조합하여 가장 기본적인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을 정립해 볼 수 있

는데,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세 가지 목표의 기본과제를 보면, 생활유지의 경우 생활을 위한 필수적, 물질적(의식주에 관한)인 기본 욕구의 충족으로 구체화되며, 인격형성 및 발달은 가족내의 관계, 생활주기별 특성에 대한 교육과

<표 1> 가정생활주기별 발달과제

	생활유지	인격형성 및 발달	공동문화 창조
기본과제	생활을 위한 필수적, 물질적인(의식주에 관한) 기본 욕구 충족	관계/교육/인간발달	개별가족문화 (가족내부의 문화) 가족간의 문화 (가족외부의 문화)
신혼기	안정된 가계재무설계 내구소비재 마련 주택마련의 구체화 교육, 주택, 노후 등 장기적 가계계획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	새로운 가족과 부부관계 형성/부부역할 확립 출산계획/부모됨의 준비 성생활에의 적응	맞벌이가족의 협력관계구축 양가부모와 친척과의 교제(중,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 이해 /가족 문화와 가족 관계의 역동성 이해) 이웃과의 교제 거주지 지역사회 이해/지역사회활동 참가
자녀양육기	가족수 증가에 따른 기본 생활비 확보 교육비/주거비 중심의 경제적 자원 확보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발달단계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의식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둘째 자녀 이하의 출산계획 자녀의 교육방침 조정 부부의 역할 분담/생활시간 재조정 부모 역할 취득	이웃자녀와 놀이 집단 형성 자녀보육기관과의 관계 조부모와 손자 등 친척과의 관계조정
가족성숙기	기본 생계비 확보 자녀 교육비 확보 주택 확장 및 조정 자녀 결혼·노후 등 가계 계획 검토 중년기 부부의 건강 부모의 건강과 영양	민주적 가족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방식 정립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과 부모의 역할 중년기 부부의 각자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성숙 부모의 노화에 대한 이해 (노부모-성장한 자녀세대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습득)	노부모의 봉양 청소년의 자녀의 지역사회 활동 참가 노인 부양에 대한 이해
노년기(유배우기)	은퇴이후 생계비확보 축소된 가정의 가계 운영 자녀 독립 후의 주거 검토	동반자적 부부관계 정립 자녀독립을 위한 지원역할 노부모 사망과 관련된 역할 수행 노화와 죽음에 대한 수용	자녀의 결혼에 따른 새로운 친척과의 관계 친구관계의 강화 취미, 여가개발 및 봉사활동에의 참가
노년기(독신기)	노인을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 선택 건강유지와 점검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확보와 주택이용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습관 성공적인 노화/홀로서기 심리적 안정도모/죽음에 대한 대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의 노화의 과정 이해	성인자녀가족과 관계조정 친구, 친척관계의 협력강화 노인의식/노인의소외감/노인과 가족간의 유대감

자료: 이기영 외 3인(1998), 생활설계론의 발달과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이를 통한 인간발달의 형성으로 구체화된다. 공동문화의 창조는 개별적인 가족문화, 그리고 가족과 가족간의 문화가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형성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별 발달과제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IV.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모색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천현장에서 가정복지서비스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의 내용상의 문제와 가정학분야에서의 실천적 노력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정복지서비스의 구체화

가정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면, 가정생활을 위한 통합적 관리서비스, 교육 및 상담서비스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1) 통합적 관리서비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과 가정은 다양한 정보와 도움, 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필요, 즉 요구에 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가정생활의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서비스라고 통칭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사·분석·진단·통제⁶⁾

먼저 가정복지서비스는 복지수요자 개인이나 가정의 요구를 분석,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즉 가정생활을 대

상으로 조사·분석·진단하는 역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정복지서비스는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대상별·서비스분야별로 정해진 서비스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방식과는 달리 개별가정 단위로 수요자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즉각적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에서부터 해당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에서 통합적 관리서비스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정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지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② 복지수요자와 상위기관과의 연계

가정복지서비스가 보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개선된 복지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상위기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제안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역시 통합적 관리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한다.

③ 가정자원의 재조직화

통합적 관리서비스 제공의 또 다른 방식은 가정자원의 재조직화⁷⁾이다. 이는 어느 특정자원이 남는 가정과 이의 자원이 부족한 가정을 서로 연계해주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아나바다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어린 자녀를 돌봐줄 일손이 필요한 맞벌이부부와 은퇴 후 일거리를 찾고 있는 노인 가정간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자원의 재조직화는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문화의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6) 통합적 관리서비스의 핵심인 조사·분석·진단·통제의 방식은 가족복지에서의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족사정이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내부 및 가족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양자간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조홍식 외 4인, 1997).
- 7) 가정자원의 재조직화 문제는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노영주 외, 1999)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가정의 자원화' 개념은 가정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활용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이 지역사회의 맥락 안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복지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주체"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교육과 상담서비스

가정복지서비스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여기서의 교육서비스는 문제해결의 차원에서부터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그리고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지적인 교육차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육서비스를 포괄한다. 상담서비스 역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부터 대인적 상담서비스까지를 포괄한다. 교육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상담서비스, 특히 대인적 상담서비스는 예방적 성격보다는 사후 문제해결의 성격을 지닌다.

2.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성 담보를 위한 가정학 분야에서의 노력

1) 가정학관점을 적용한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생활관련 복지프로그램은 가정학적 관점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정학자들은 그 주체가 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가정복지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가정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인데, 이때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는 복지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재조직, 개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연구에서도 학력이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학분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가정, 계층적으로는 중산층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자원결핍가정(편부모가족, 저소득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단지 가정학의 세부전공분야를 단순히 나열하여 합쳐놓는 식이 아니라 세부전공의 내용들이 대상자의 발달과제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정복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두 녹아들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자들이 전공간의 연계를 이루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하며, 전공간의 교류 뿐 아니라 지역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복지서비스를 재구조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복지서비스분야에 대해 가정학적 관점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 예로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부문에 가정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분야가 가정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과 강조는 한국사회의 특성,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기능을 시설이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해주는 서비스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예방적인 서비스의 한 방법으로 일반가정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제안(김명숙, 1995)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각 대상에 적합한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현장 확보를 위한 노력

가정학분야에서의 가정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생활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나 평생교육원, 또는 가정학관련의 사단법인(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가정복지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정부지원하의 가정복지센터 설립(공인숙, 1999)이 필요하다.

3)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양성과 관리체계구축

가정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장에 적용가능한 서비스의 개발, 현장의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 전달의 주체자 또한 필요하다. 서비스전달의 주체를 양성, 배출하기 위해 한국가정관리학회 인증의 '가정복지사'를 99년까지 2년

에 걸쳐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가족관계, 가정경영, 아동, 소비자 뿐 아니라 의식주생활 등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가정학영역을 통합하는 가정복지 개념구축을 위하여 가정복지사 인증 주체가 2000년부터는 대한가정학회로 이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복지사” 자격증이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보다 실천적인 교과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상호 피드백과정을 통한 보완, 수정과정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달주체의 양성과 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정복지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의 자격증이 되기 위한 입법화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4) 가정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다양화

가정복지서비스를 서비스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정학분야의 연구성과 중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와 기관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가정생활관련 정보의 DB화를 통한 정보망과 network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전공별로 정보를 분류하고 코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학분야에서의 정보 DB화와 네트 형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CES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립대학의 농학부와 가정대학을 중심으로 1914년에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라는 부속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에서는 지역의 사회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강좌를 개최하고 상담업무 및 팸플렛 발행 등 여러 가지 생활정보의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CES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과 연구를 기초로

한 지식을 널리 커뮤니티에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Cornell대학의 경우는 CES지방사무소를 뉴욕시의 5개소를 비롯하여, 그 외의 57지역에 설치하여 총6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홍형욱 외, 1998).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ES의 소개 및 활동사항, 실생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농촌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촌진흥청 산하의 ‘생활지도사’ 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가정학분야에서는 전체 차원에서의 DB화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적 골격 하에 각 대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의 특성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의 유료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복지서비스는 공공재에서부터 준공공재, 상품재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포괄적이므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방법의 구체적 예로는 현재 Internet을 이용한 IP사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제공의 방법은 ‘가정복지 전달체계의 모형탐색’(공인숙, 1999)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V. 요약 및 결론

가정학은 가정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지금까지 가정생활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가정학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정학 내부의 반성적 성찰을 기반으로 가정학의 실천성을 담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복지의 개념

8) 가정복지사 양성 및 관리체계는 한국가정관리학회 25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완정(1999)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람.

화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노력 역시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정복지의 개념을 토대로, 가정복지가 현장의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체적인 방식인 가정복지서비스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내용은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생활을 통합하는 가정학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에 관해 모색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가정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가정복지서비스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합적 관리서비스, 교육과 상담서비스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학분야에서 서비스의 실천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의 노력과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하였다. 실천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1)가정학관점을 적용한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발, (2)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현장 확보, (3)가정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양성과 관리체계구축, (4)가정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다양화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이상과 같은 실천적 노력들이 부단히 지속될 때, 지금까지의 가정학적 연구결과들이 연구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의 질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가정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복지서비스가 구체화되고 실천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실천가능한 모습으로 녹여내는 작업 뿐 아니라 한국사회 속에서의 가족, 가정생활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는 철학적, 이론적 작업 또한 매우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 고선주, 조은숙, 옥선화(1998). 부모기 전이기의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6(5), 167-185.
- 공인숙(1999).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217-228.
- 김경신(1996).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김명숙(1995a).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단기정책연구(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167.
- 김명숙(1995b). 우리나라 가정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0.
- 김혜란·장경섭(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II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단기정책연구(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187.
- 노영주, 허정원, 서지원, 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4.
- 문숙재, 김순미(1996). 가족생활시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49-262.
- 문숙재,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성영애·이기춘(1988). 소비자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생활과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1-24.
- 송인숙(1998). 부천시 지역 소비자지원행정 현황과악과 소비자요구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249-262.
- 송정아(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3-130.
- 송혜림(1999). 가정복지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1-45.
- 오윤자, 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05-218.
- 옥선화, 이형실, 이춘희(1994).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부양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61-77.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지방화시대와 가

- 정복지. 대한가정학회 48차 학술대회. 1-2.
- 유은희, 홍숙자, 전길양(1996). 중년 며느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이기영(1998). 인간과 생활환경에 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 편. 인간과 생활환경 15-54. 서울:학지사.
-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학지사.
- 이성희 · 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18.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98-159.
-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학지사.
- 이완정(1999). 가정복지사 양성과 관리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160-182.
- 이정연, 정혜정, 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3-26.
- 임정빈 · 김양희 · 이기영 · 홍형욱 · 계선자 · 이정숙 · 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63-180.
- 임정빈(1997). 가정학 전공자는 가정복지사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주거학연구회(1999). 전국 도시 거주자의 주택상담경험에 따른 주택정보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3-25.
- 정영금(1995). 사회교육에서의 가족자원관리교육의 전개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3(5). 269-277.
- 조홍식 · 김인숙 · 김혜란 · 김혜련 · 신은주(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정혜정(1999).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59-173.
- 최연실(1999). 한국 가정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99-118.
- 최혜경 · 노치영 · 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 홍성희 외 5인(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 홍숙자, 이형실, 전길량(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 부양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09.
- 홍숙자(1995).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홍향숙 · 이기춘(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69.
- 홍형욱 · 강순주 · 권오정 · 이경희 · 주서령 · 최재순 · 최정신(1998). 서울시 거주자의 주택상담과 자료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71-82.
- 홍형욱, 최재순(1998). 미국대학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가 제공하는 Internet상의 주생활정보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69-82.